

# 東北아시아 初期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李 東 注\*

## 〈목 차〉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초기 신석기문화의 2가지 계통
- III. 東시베리아·극동지역의 初期 新石器文化
- IV. 우리나라의 初期 新石器文化와 周邊地域과의 關係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우리나라 초기 신석기문화의 내용은 隆起文土器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무문양에 식물성 섬유가 혼입된 태토를 지닌 제주도 고산리유적의 절대연대가 10,000년 이전으로 확인되면서 이 토기문화가 한반도의 가장 이른 신석기유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격이 다른 이 2가지 계통의 토기문화가 시기적 차이를 가지면서 변화 발전된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아무르(Amur)강 유역에서 발생한 2가지 계통의 초기 신석기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성격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중 제주도 고산리유적의 경우 10,000~13,000년 이전의 절대연대가 확인되는 시베리아 아무르강 하류의 오시포프카(Osipovka)문화가 동해안을 따라 확산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용기문토기문화는 이 특징을 가진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Novopetrovka)문화와 관련 깊은 것으로, 최근 13,000~9,000년 전의 절대연대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 2계통의 문화는 거의 동시기에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토기문화가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돌연히 나타나게 된 배경

\* 東亞大博物館 學藝研究員

에 대하여, 후기 구석기시대에 나타나는 토제 비너스상에 주목하였다. 이 중 15,000년 전의 유적으로 편년되는 바이칼호수 서쪽에 위치하는 마이나유적에서는 전형적인 비너스상에서 형식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머리 부분이 생략되며, 십자모양으로 팔을 벌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부분이 짧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이른 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토우에서도 그 특징이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르강 유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일본열도 초기 신석기문화의 원류지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주제어 : 용기문토기, 조흔문토기, 오시포프카(Osipovka)문화, 노보페트로프카(Novopetrovka)문화, 비너스(Venus)상, 마이나(Maina)유적, 고산리 유적, 土偶



## I. 머리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문화를 형성하였던 구석기문화가 끝이 나고 새로운 환경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신석기문화가 시작되게 된다. 과거 수 백 만년간 점진적인 진화와 발전과정을 거쳤던 인류의 문화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우리가 흔히 민족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이러한 지역적 정착에 따른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문화의 형성이나 개념은 이 시기로부터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시베리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신석기문화의 발생과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의 내용은 지금까지 隆起文土器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큰 편이다. 특히 구석기문화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신석기시대 토기문화로 발전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범 세계적으로도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sup>1)</sup> 일본열도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隆起文土器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으나,<sup>2)</sup> 최근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에서도 보다 빠른 증거

1)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사이에 中石器文化라는 단계를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細石器를 특징으로 하는 중석기문화는 시베리아지역의 경우 25,000~30,000년 전에는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5,000년 전에는 이미 나타나고 12,000년경에는 거의 소멸되는 단계로 접어들다. 또한 최근 시베리아 아무르강 연안지역에서 13,000년 경에는 條痕文系統의 토기를 공반하는 오시포프카文化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경우는 12,000년 전에는 隆起文土器나 條痕文土器를 중심으로 하는 繩文文化 초창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최소한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는 後期 舊石器文化에 이어지는 細石器를 표식으로 하는 中石器文化는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2) 이 토기의 중요성은 일본 繩文文化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九州 北西部에 위치하는 福井岩陰遺蹟<sup>1)</sup>에서 세석기와 함께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층의 방사선 탄소연대치가 12,700±500 B.P.(Gak-950)로 나타나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年代는 당시까지 지질학상으로 舊石器時代에 속하는 후기 更新世末까지 토기의 발생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없었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先史時代에 있어 세계 문화의 가장 오지에 속하는 극동지방의 열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토기문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당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시기에 해당하는 많은 유적들이 일본 전역에서 확인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연대측정이나 화산재와 같은 퇴적층의 지질학적 분석에서도 이와 同一 類型的의 유적에서

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식물성 섬유 흔적이 뚜렷한 高山里式土器가 10,000년 이전이라는 절대연대가 확인된 바 있으며, 그와 함께 細石刃이나 細石核 등 각종 구석기시대의 전통을 가진 석기들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동일 층에서 隆起文土器片들도 일부 혼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기군들이 후기 구석기시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문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무르강 중류역과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 편년에 있어서도 가장 古式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기 신석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 성격의 토기문화를 가진 이들 지역들의 편년이나 문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초기 신석기문화의 2가지 계통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는 과거부터 널리 알려져 온 隆起文土器 文化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후기 구석기문화 단계의 細石器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濟州道 高山里遺蹟의 無文樣系 土器文化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후자는 유적의 명칭을 따라 고산리식토기라고도 불리는데, 이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동북아시아 주변지역의 문화와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隆起文土器

隆起文土器는 토기의 바깥 면에 점토띠를 덧붙이거나 돌출시켜 다양한 문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기법의 토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앞서 살펴본 아무르강 중류역과 中國 東北地方, 그리고 일본 本州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 넓은 분포를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隆起文土器의 분포는 그림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

나타나는 연대는 대략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이제 더 이상의 논의는 종결되었고 이러한 시기를 繩文時代 草創期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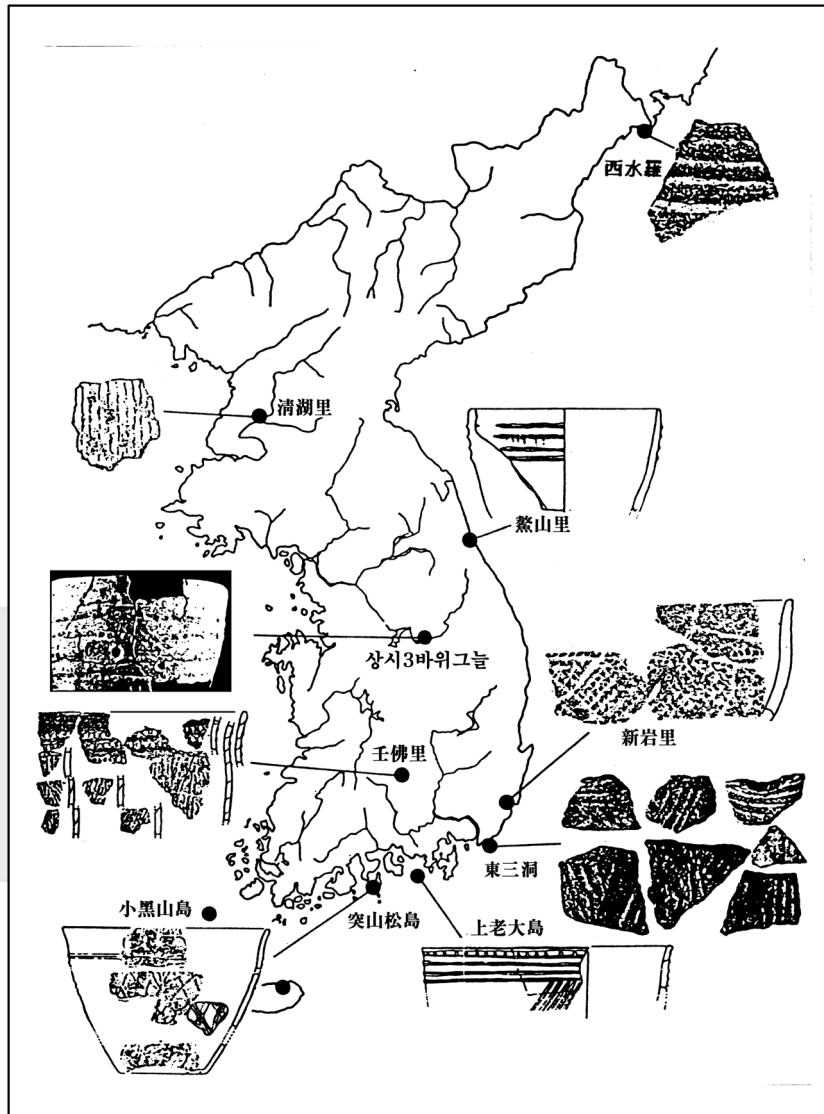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의 분포

동북지역 西水羅遺蹟<sup>3)</sup>에서 서북지역 清湖里遺蹟<sup>4)</sup>, 중부지역의 上詩 3바위 岩陰遺蹟<sup>5)</sup>,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는 거의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3) 八木獎三郎, 1960, 『北鮮咸鏡北道石器考』, 『先史學』 1, 東京人類學會 人類學叢刊 乙.

4) 笠原鳥丸, 1936, 『빛살문土器를發見せる北鮮清湖里遺蹟に就て』, 『人類學雜誌』 51-5, 183~197쪽 ; 『人類學雜誌』 51-6, 256~267쪽.

5) 홍현선, 1987, 『상시3바위그늘의 문화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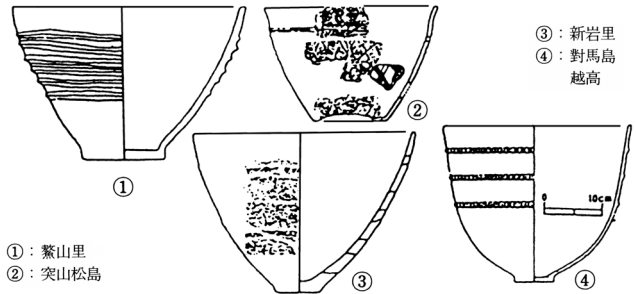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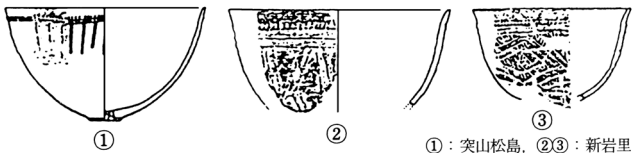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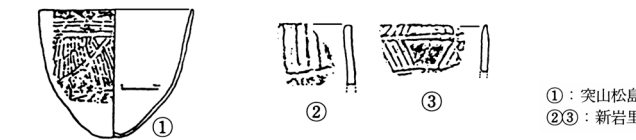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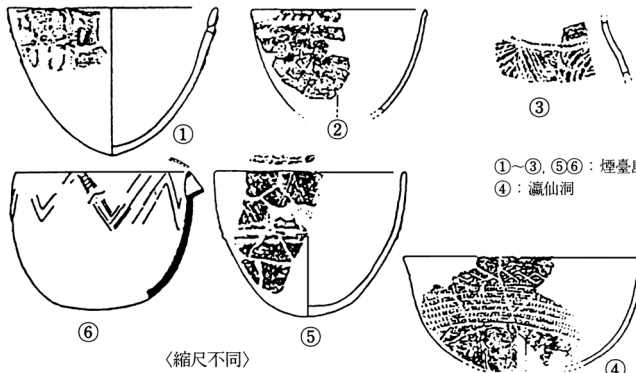
段階	器形과 特徵
1 단계	 <p>③ : 新岩里 ④ : 對馬島 越 高</p> <p>① : 鰲山里 ② : 突山松島</p>
2 단계	 <p>① : 突山松島, ②③ : 新岩里</p>
3 단계	 <p>① : 突山松島 ②③ : 新岩里</p>
4 단계	 <p>①~③, ⑤⑥ : 煙臺島 ④ : 瀛仙洞</p> <p>〈縮尺不同〉</p>

그림 2. 韓國 隆起文土器의 器形變化和 段階設定

있다. 뿐만 아니라 층위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가장 하층 양식으로 인정되고 있다.<sup>6)</sup>

6) 淸道 梧津里遺蹟의 조사에서는 隆起文土器 下層에서 보다 古式의 條痕文土器가 出土되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層位的 문제와 토기의 器形과 特徵,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批判을 가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樣相이 유사한 단계의 유물이 出土되고 있는 河東 牧島里遺蹟이나 釜山市 凡方遺蹟 등 여러 유적에서도 押引文土器 下層文化라는 것이 확인될 뿐 隆起文土器보다 下層式이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유적에서 나타나는 層序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隆起文土器의 편년관계는 개략적으로 그림 2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며, 남부지역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기형상 평저에서 원저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과정은 아무르강 중류역과 유사한 平底 深鉢形 器形에서 文樣帶가 口緣部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胴體部에 施文되는 것을 1단계로 편년하였으며, 2단계는 文樣帶의 특징은 유사하지만 底部가 아주 좁아지면서 3단계에 이르면 圓底나 尖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文樣帶는 口脣部까지 시문되는데,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器形이 尖底 혹은 圓底로 변화하며, 口脣部에는 刻目文이 시문되는 경우가 많고 문양 區劃帶는 胴體 상단에서 口脣部까지 主文樣帶가 시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양이 퇴화하면서 鋸齒文樣이 많이 나타나며, 상단부를 중심으로 沈線文樣과의 복합되거나 壺形土器가 공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口脣刻目文의 전통이나 壺形土器, 그리고 圓底 혹은 尖底 器形의 특징은 條痕文이나 圓孔文, 押引文土器 단계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이 토기는 동북아시아 각 지역별로 가장 古式에 속하는 토기형식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中國 東北地域의 경우 명확한 절대연대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福井岩陰遺蹟<sup>7)</sup>의 조사를 시작으로 12,000여 년 전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絕對年代 資料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 시베리아의 경우에도 이와 상응하는 연대가 확인되어 있다.<sup>8)</sup> 특히 隆起文土器의 분포는 아무르강 중류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北海道를 제외한 九州와 四國을 포함하여 本州 북단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隆起文土器 문화도 당연히 이와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토기는 바로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기원과 관련될 수 있지만, 명확한 절대연대가 확인되지 않아 그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설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日本 繩文文化 前期 前半으로 編年되는 轟B式土器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남방기원론이고,<sup>9)</sup> 다른 하나는

의 상황이나 共伴 遺物, 器形의 系統上으로 보아 隆起文土器가 보다 古式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4, 『淸道 梧津里 岩陰遺蹟』 雲門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1; 李東注, 1998, 『韓國 初期 新石器時代의 文化的 性格』, 『轉換期の 考古學(1)』, 韓國上古史學會. 7) 鎌木義昌·芹澤長介, 1967, 『長崎縣福井岩陰』, 『日本の洞穴遺蹟』.

8) Derevianko A.P. et al., 2002, "AMS 14C age of the earliest pottery from the Russia Far East : 1996~2002 results.", Abstract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Nagoya University.

9) 江坂輝彌, 1980, 『西北九州の繩文文化と朝鮮半島南部の先史文化』, 『考古學ジャーナル』 183.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방의 아무르강 중류역에 위치한 노보 페트로프카유적 용기문토기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는 北方 起源論이다.

지금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남방기원설은 6,300 B.P. 이후로 편년되는 日本 轟B式土器의 북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과거 이 토기가 일본 九州地域과 가장 가까운 남해안지역 패총유적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현재 위치의 패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해수면 상승이 시작된 6,000여 년 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貝殼이나 貝殼層의 木炭을 試料로 하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절대연대는 이 연대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용기문토기는 貝殼層 형성 이전 단계인 패각층 下層에서부터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sup>10)</sup> 아울러 남해안지역만의 편협적 분포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우리나라와 아무르강 중류역 사이의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동일유형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남하 과정이 잘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隆起文土器 단순 유적으로서 처음 확인된 蔚山 牛峯里遺蹟<sup>11)</sup>에서는 인접한 해안 단구상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貝殼이나 바다 자갈돌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다량의 하천자갈들만 출토되는 점이나 黑色 古土壤 下層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 海水面 上昇期 이전에 형성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어 간접적 연대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 용기문토기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예상되는 시베리아 아무르강 중류역에 위치하는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연대가 최초 보고 당시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일반적 편년안에 근거하여 가장 이른 연대인 기원전 5,000년기 말에서 4,000년기 초로 편년하였지만, 최근 과학적 연대 측정기법(AMS)을 이용하여 절대연대를 확인할 결과 13,000~9,000전으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sup>12)</sup>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의 연대도 당연히 상향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日本 繩文文化 草創期에 나타나는 隆起文土器도 이러한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무르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初期 新石器文化 단계의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의 시공적 위

廣瀬雄一, 1984, 『韓國隆起文土器論』, 『異貌』 11.

廣瀬雄一, 1986, 『韓國隆起文土器の系譜と編年』, 『異貌』 12.

10) 李東注, 1993, 『동아시아에 있어서 韓國의 初期 新石器文化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新石器文化』 國立文化財研究所.

11) 沈奉謹·李東注, 1997, 『蔚山 牛峯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2) Derevianko A.P. et al., op.cit.

치나 성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高山里式土器

濟州道 高山里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용기문토기와는 또 다른 初期 新石器時代의 중요한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이 유적은 우연히 이 곳에 농사를 짓던 한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1994년 시굴조사를 거쳐<sup>13)</sup> 1998~1999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4)</sup>

이 유적 출토 유물은 그림 3·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隆起文土器 일부를 비롯하여 植物性 纖維가 다량 혼입된 無文樣土器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는 櫛齒狀의 道具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눌러 시문한 지그재그상의 문양과 동일 施文具로 뺨뺨히 押捺된 문양의 平底土器, 그리고 口緣部 아래에 구멍이 뚫린 圓孔文土器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공반 석기 유물은 縱長形의 퇴화된 細石核이나 尖頭器와 細石刃을 비롯한 각종 剝片石器類, 穿孔具, 爪形 스크레이프를 비롯하여 삼각형의 無莖式·有莖式石鏃類를 비롯하여 魚形石鏃類 등 다양한 打製石鏃類들이 출토되었다. 공반 유물 중에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신석기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크게 2계통의 토기류가 확인되는데 하나는 용기문토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문양의 식물성 섬유가 포함된 소위 고산리식토기류이다. 후자의 경우 지그재그文이나 圓孔文, 櫛齒狀의 압날문과 같은 요소들은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아무르강 하류역 초기 신석기문화인 오시포프카(Osipovka)문화 後半 단계의 곤차르카1(Goncharka-1)유적이나 우스치노프카3(Ustinovka-3)유적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식물성 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高山里式土器는 河東 牧島里遺蹟<sup>15)</sup>이나 釜山 凡方貝塚<sup>16)</sup>, 그리고 淸道 梧津里<sup>17)</sup> 下層에서 나타나고 있는 條痕文土器들과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器形이나 口脣刻目文 등의 특징에서 세분될 수 있으며, 그 중 고산리유적의 경우가 가장 古式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3)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高山里遺蹟』.

14) 강창화·오연숙, 2003, 『濟州 高山里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5) 國立晉州博物館, 1999, 『牧島里貝塚』.

16) 河仁秀, 1993, 『凡方貝塚』 I,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河仁秀, 1994, 『凡方貝塚』 II,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7)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4, 『淸道 梧津里 岩陰遺蹟』.

이 유적에서 隆起文土器와 高山里式土器와의 시기적인 선후관계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高山里式土器가 隆起文土器에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sup>18)</sup> 특히 그 원류 문제에 있어서도 隆起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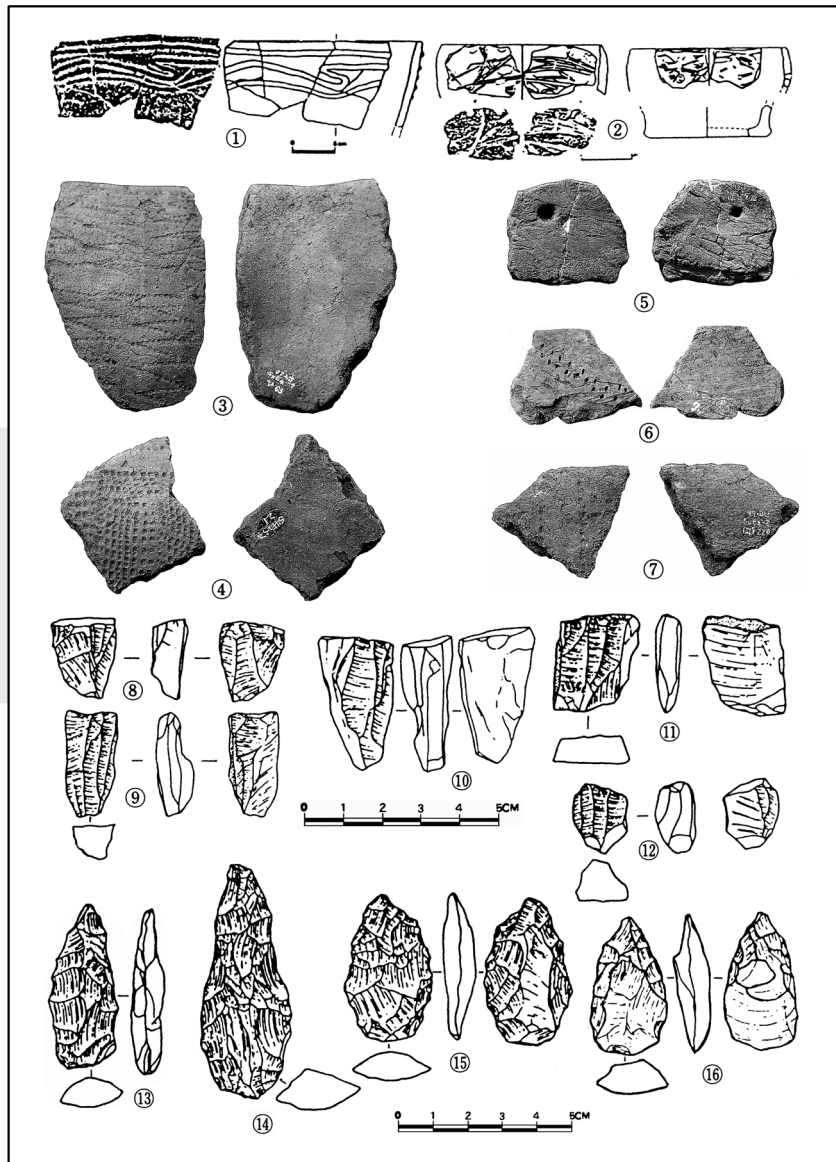


그림 3. 濟州道 高山里遺蹟 出土遺物(1)

18) 任孝宰, 1997, 『신석기문화』,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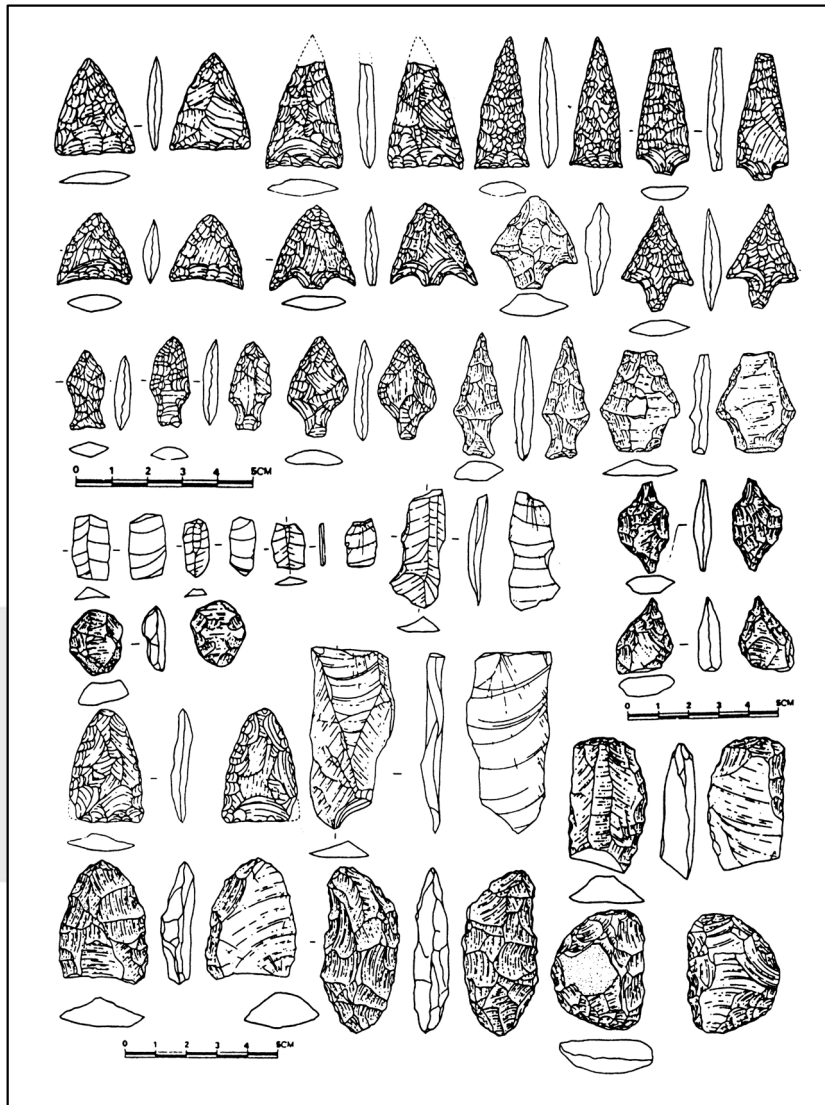


그림 4. 濟州道 高山里遺蹟 出土遺物(2)

土器는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高山里式土器는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 이 양자의 유물이 어떠한 시기 차를 가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인접한 북부 구주지역의 福岡縣 栢原遺蹟이나 新潟縣의 壬遺蹟의 승문문화 초창기 단계의 원공문토기에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sup>19)</sup>

<sup>19)</sup> 横浜市歴史博物館, 1996, 『縄文時代草創期』 資料集.

그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 Ⅲ. 東시베리아·극동지역의 初期 新石器文化

시베리아 아무르강유역에서는 과거부터 많은 수의 후기 구석기 단계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간혹 토기가 공반되는 예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後期 舊石器時代の 石刃石器 문화 단계에 토기가 공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日本 福井洞穴과 같은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아무르강 中流域에 위치한 노보페트로프카(Novopetrovka)유적의 조사에서도 細石器文化와 관련되는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12,700± 500 B.P.의 절대연대가 나타난 日本 福井洞穴 출토 隆起文土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sup>20)</sup> 당시의 시베리아지역 초기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5,000년대 말에서 4,000년대 초기로 추정하였다.<sup>21)</sup> 그리고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隆起文土器도 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계통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으며 절대연대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편년되어 왔다.<sup>22)</sup>

그러나 최근 아무르강 下流域에 위치하는 가샤유적을 중심으로 細石器文化를 바탕으로 하는 구석기문화의 기술적 전통을 가지면서 토기를 반출하는 오시포프카(Osipovka)文化에 속하는 유적들에 대한 활발한 조사가 있었다. 아울러 여러 유적에서 같은 시기의 절대연대가 규명되면서 이 문화의 연대를 13,000~10,000 B.P.에 존재한 것으로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1961년에 조사되었던 노보페트로프카유적<sup>23)</sup>의 연대도 오시포프카문화와 관련되는 아무르강 中流域 最古의 토기 문화로 보고 있다. 최근 노보페트로프카문화와 관련되는 석기 구성을 이루는 후기 구석기유적이 붓세(Busse)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18,000~12,000 B.P.), 이 토기의 연대는 보다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노보페트로프카유적에서 공반되는 隆起文土器를 비롯한 초기 신석기문화의 전통을 시베리아지역에서 찾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르강 연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유적들의 성격과 절대연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지 않

20) Деревянко, А. 1970, П Новопетр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го Амура. Новосибирск.

21) A. P. Derevianko · V. T. Petrin, 1995, "The Neolithic of The Southern Russian Far East: A Division into Periods", 『東아시아·極東の土器の起原』 東北福祉大學 國際シンポジウム.

22) 韓永熙, 1983, 『地域的比較』, 『韓國史論』 12.

23) Деревянко, А. op.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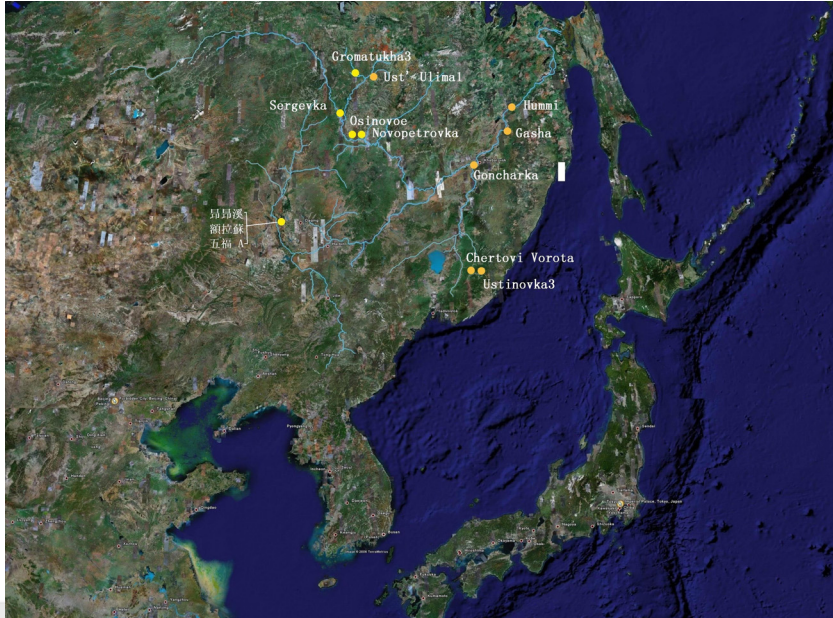


그림 5. 동시베리아·극동지역 土器 出現期の 重要遺蹟

을 수 없다.

그림 5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르강을 중심으로 하는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更新世末에서 完新世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古土器가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 분포도이며, 그 중 절대연대가 확인된 것들은 다음의 표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표 1. 아무르강 流域의 絶對年代가 確認된 更新世末의 土器 出土遺蹟

地域	遺蹟	絶對年代	出典
上流	우스트·까흐타1 (Ust' Kyakhta)	12,595±250, 10,155±100 B.P. 11,500±100 B.P.	三上次男외, 1989. V. E. Medvedev, 1993.
	우스트·카렌가 (Ust' Karenga)	11,240±120, 10,750±60 B.P.	V. M. Victrov, 1995.
中流	우스트·우리마 (Ust' Ulima)	12,000-10,500 B.P.	V. E. Medvedev, 1993.
下流	가샤(Gasha)	12,960±120, 10,875±90 B.P.	A. P. Derevianko & V. E. Medvedev, 1995.
	훔미(Hummi)	13,260±100, 10,345±110 B.P.	A. P. Derevianko & V. E. Medvedev, 1995.
	곤차르카 (Goncharka-1)	10,590±60, 9890±230 B.P. 12,500±60 B.P.	梶原洋, 1997.

우선 아무르강 유역의 유적들 중 절대연대를 가지며 가장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하류역의 유적을 먼저 살펴보고 상류역과 중류역의 문화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무르강 下流域

아무르강 하류역 초기 신석기문화인 오시포프카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가샤유적과 훔미유적, 곤차르카유적, 우스치노프카유적, 체르토뷰·보로타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 1) 가샤(Gasha)遺蹟

이 중 가샤유적은 아무르강변에 위치한 13~16m의 수직상 斷崖部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1975~1976년, 1980년, 1986~1990년에 걸쳐 조사가 실시된 유적이다.<sup>24)</sup> 이 유적 출토 토기의 색조는 흑색과 흑갈색, 회갈색을 띠며 단면은 검은 것이 많으며, 胎土는 거의 모든 파편에서 식물섬유의 잔존물이 남아 있고 조립의 모래나 잘게 부셔진 鑛物이 혼입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나타나는 토기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개략적인 유물의 내용은 그림 6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석기의 경우, 오시포프카 문화층에 극히 특징적인 것은 끝 모양의 刃部를 가진 石斧스크레이퍼狀 石器(주걱모양석기)가 존재하는 것이며, 대부분 편평한 자갈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앤드·스크레이프나 몇 종류의 兩面加工 나이프狀 石器가 있으며 그 밖의 종류는 비교적 양이 적다. 자갈로 만든 손도끼 모양의 兩面加工 石器와 나이프·스크레이프와 같은 복합석기의 그룹도 확인되며, 彫刻刀는 一側邊이나 경사면에 彫刻刀面이 들어 있는 것(荒屋型)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石核은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소재는 별로 크지 않고 편평한 半圓狀의 자갈이나 특별히 준비된 石材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木口型(舟形)의 細石核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프리즘형의 石核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으며, 이 외에 石刃, 細石刃, 스폴, 박편 등이 많고, 또한 상당한 양의 漁撈에 관련되는 다양한 石錘가 있다.

24) Vitaly E. Medvedev, 1993, 『ガシャ遺蹟とロシアのアジア地區東部における土器出現の問題について』, 『環日本海地域の土器出現期の様相』1993年度 日本 考古學協會 シンポジウム, 雄山閣.

遺蹟	出土遺物
홈 미 (Osipovka文化) 13,260±100 B.P. 10,345±110 B.P.	
가샤 (Osipovka文化) 12,960±120 B.P. 10,875±90 B.P.	
곤차르카 (Osipovka文化) 10,590±60 B.P. 9890±230 B.P.	
우스치노프카 (Osipovka文化)	
가샤 2住居址 (Malyshev文化) 10,000±7000 B.P.	
체르토티비 ·보로타 (Malyshev文化) 10,000±7000 B.P.	

그림 6. 아무르강 하류역의 초기 신석기문화

가샤 遺蹟의 제1차 調査區域에서 오시포프카文化로서는 최초의 放射性炭素年代가 얻어졌는데 12,960±120(層底部)와 10,875±90 B.P.(層天井部)로 나타났다.<sup>25)</sup>

25) Anatoly P. Derevianko · Vitaly E. Medvedev, 1995, "The Amur River Basin as one of the Earliest Centers of Ceramics in the Far East",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學 國際シンポジウム.

## 2) 훔미(Hummi)遺蹟

훔미유적은 아무르강 본류에서 약간 떨어진 佑岸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보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사유적 하층 단계와 동일한 석기와 토기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며, 토기의 내외면에 條痕을 가진 특징으로 보아 가사유적의 下層文化 下部 類形土器와 동일한 계통으로 판단된다. 이 유적에서 측정된 放射性炭素年代는  $13,260 \pm 100$  B.P.,  $10,345 \pm 110$  B.P.로 오시포프카문화의 年代值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출토 유적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 3) 곤차르카(Goncharka)遺蹟

곤차르카유적은 1989년 발견되어 1995년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sup>27)</sup> 하바로프스크시의 남서 20km, 노보트로이츠크에村的 서북 1km 지점의 아무르강 導流(우수리강의 最下流域) 佑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물 출토층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10,590 \pm 60$ ,  $9,890 \pm 230$  B.P.로 나타났다.<sup>28)</sup> 석기는 양면가공이나 平面剝離가 많으며, 다양한 크기를 가진 비대칭이나 대칭형의 木葉形 兩面加工 尖頭器나 石斧, 스크레이프狀 石器, 石刃, 앤드·스크레이프 등이 있다. 석제 유물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 背面 緣邊部에 불규칙한 이차가공을 가진 石刃 素材의 물고기 모양의 石偶가 있다. 미세한 兩面加工으로 만든 꼬리, 지느러미, 입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 출토품 중에도 플린트 石刃 소재의 타제 물고기 형상 자료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적의 석기 중에는 背面加工 切斷具에 刃部가 磨研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된 進歩性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자에 의하면 토기는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그룹은 각이 넓은 모래나 砂礫粒이 많이 혼입되고 두께는 0.7~0.8cm의 器壁을 가지며, 내면은 풀이나 櫛齒狀의 도구에 의하여 調整한 條痕이 나타나고 있다. 문양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몇 점의 口緣部에는 위에서 옆으로 棒狀의 도구를 이용하여 繩文狀으로 押壓하여 波狀이 되도록 가공하고 있다. 특히 口緣部の 아래에는 貫通된 둥근 구멍이 수평으로 열을 지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

<sup>26)</sup> Ibid.

<sup>27)</sup> 梶原洋 譯(イ-ゴリ・ヤコ-プレビッチ・セエフカム-ト외 지), 1997, 『極東・沿海州の土器-ゴンチャール카1遺蹟の發掘調査』, 『考古學研究』 44-3(通卷175).

<sup>28)</sup> 앞의 논문.

한 특징의 토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列島에서도 初期 新石器文化의 일요소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sup>29)</sup> 동체부에는 櫛齒狀의 點列文이 나타나고 있으며 토기의 燒成은 나쁜 것으로 보아 저온에서 구운 것임을 알 수 있고, 파편의 단면은 검고 외벽만 明褐色을 나타내고 있다.

제2그룹은 토기 파편의 절단면에서 물에 갈리지 않은 모래나 小礫粒의 혼입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두께 1cm에서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 제1그룹보다는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하며 마른 粘土粒子狀의 인공적인 混和劑로 추정되는 혼입물도 확인되고 있다. 토기의 器形은 平底이고, 내외면에는 제1그룹과 같이 櫛齒狀 工具로 빗질한 線狀의 條痕이 보이는데 폭은 보다 넓다. 대부분의 파편에서 나타나는 燒成溫度는 낮으나, 그 중 파편 몇 점은 煉瓦色이 될 때까지 燒成하고 있어 燒成溫度가 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토기의 문양은 櫛齒狀의 공구에 의하여 調整된 후 곧바로 繩文 押壓에 의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그재그문양이 나타나는 13점의 토기편은 편평한 口脣部를 나타내며, 구연부 아래에 圓孔文이 뚫어져 있고 문양은 그 아래에 수직으로 施文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와 동시기의 절대연대가 확인된 우리나라 濟州道 高山里遺蹟<sup>30)</sup>에서도 식물성 섬유가 다량 포함된 高山里式土器 중에 圓孔文이나 지그재그문양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魚形 石鏟 등도 오시포프카문화의 전통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매우 주목된다. 胎土에는 砂礫粒의 混入物이 확인되고 빗질에 의한 內面調整 흔적이 있으며 燒成溫度는 낮다. 橫方向으로 단면이 둥근 波狀의 條痕이 나타나고 작은 櫛齒에 의한 특징적인 비스듬한 押壓文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는 口脣部에 刻目文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

#### 4) 우스치노프카3(Ustinovka-3)遺蹟

이 유적은 연해주의 동부 연안지대에 위치한 유적으로 수년간 러시아·日本 合同考古學調査團에 의하여 조사되었는데, 토기군은 1994년 조사 중에 발견되었다.<sup>31)</sup> 後期 舊石器時代에서 新石器時代로의 이행기 문화적 특징을

29) 이러한 圓孔文土器는 日本의 경우 新潟縣 壬遺蹟과 九州 福岡縣의 原遺蹟, 佐世保市 岩下遺蹟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繩文文化 草創期 혹은 早期로 편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欲知島遺蹟과 凡方遺蹟, 安島遺蹟 등 주로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李東注,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30)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앞의 책.

31) A. V. Garkovik · L. S. Zhushchikhovskaya, 1995, "The Earliest Ceramic Assemblage

나타내고 있는 고고학적 유적군에 포함되고 있으며, 古植物學的 자료에 의하면 이 유적은 기원전 9,000~8,000年紀의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출토한 석기는 전통적인 구석기의 제작기법과 신석기시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석기 제작법이 혼합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文化層은 층적에 의한 礫段丘 위에 퇴적된 洪積作用에 의한 砂質 礫층 위에 형성되어 있다. 토기편은 礫層에 접한 문화층의 하부에서 채취되었는데 모두 150점 정도 확인되었으며 2~3개체 분의 토기 파편이다. 토기는 이라이트질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胎土에는 석영, 방해석, 운모가 섞여 있지만 광물이나 유기물과 같은 인공이 가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토기의 제작법은 단단한 틀에 粘土를 눌러 주물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바깥면에는 특별한 처리가 없으나 안쪽은 굵은 풀(혹은 木片의 端)과 같은 도구로 문지른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燒成溫度는 600도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토기의 형태는 확실하지 않으나 口緣部는 넓고 胴部는 직립하며, 底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토기에 특별한 장식은 없고 몇 개의 口緣部 파편에는 口緣 가까이 관통한 구멍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스치노프카 3유적의 토기군은 곤차르카遺蹟과 함께 연해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유적 석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아주 발달된 細石刃·石刃·彫刻刀와 같은 제작기법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곤차르카유적 보다는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細石刃과 유사한 긴 剝片과 彫刻刀의 刃部에 나타나는 가공물 몇 점은 거의 규격화되지 않은 石核에 직접 타격을 가하여 만든 것이다. 細石刃과 彫刻刀의 제작 기법은 몇 개의 형식을 가진 양면 가공 석기로 대표되며, 細石刃·石刃·彫刻刀의 제작 기법이 점차 소멸하는 단계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 단계 석기 제작기법의 특징을 종합하면 臺石과 햄머용의 돌만을 사용하고 石核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조잡한 제작기법이 나타나는데, 제주도 고산리유적의 경우와 유사한 편이며, 석기의 양면 가공기법이 한층 발달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sup>32)</sup>

in the Primorye Region”,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學 國際シンポジウム.  
<sup>32)</sup>Nina A. Kononenko·Andrea V. Tabarev, 1995, “Lithic Technology Tradition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e Maritime Region, Russian Far East”,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學 國際シンポジウム.

## 5) 체르토티 · 보로타(Chertovi Vorota)遺蹟

이 유적은 우스치노프카(Ustinovka)유적의 서쪽에 위치하는 沿海州 沿岸의 동굴유적이다. 이 양자의 유적은 모두 初期 完新世에 속하는 것이나 (10,000년전~7,000년전) 고고학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아 우스치노프카3유적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지만 석기의 형식과 제작기술에서는 확실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체르토티 · 보로타유적 출토 토기는 몇 가지의 종류로 특징상 구분되고 있다. 문양의 시문기법에 있어서는 押型文이나 押引文, 그리고 隆起狀의 波狀文이 나타나고 있으며, 口緣部의 형태에 있어서도 內緣部가 두텁게 부푼 것과 外反하는 것 등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口緣部 가까이 押引文이 시문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르강 중류역의 그로마투화遺蹟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菱形의 押型文은 가샤유적 2호 주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층위상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콘돈(Kondon)문화나 보이스만(Boisman)文化와도 관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 2. 아무르강 上流域

### 1) 우스트 · 카렌가(Ust' Karenga)遺蹟

北자바이칼의 비티뎀(Vitim)강 상류역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우스치 · 카렌가 유적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적들은 帶狀의 하안단구상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河床礫, 성층한 汎濫原의 砂層, 陸成의 퇴적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堆積土의 상부는 4개의 문화층(VII, VIIa, VIII, VIIIa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토층상에 凍結現像이 나타나고 있어 文化層을 포함한 그 하층까지 교란시키고 있다.<sup>34)</sup>

각 문화층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는 VII層: 11,240±120 B.P.과 10,750±60, VIII層: 12,710±380 B.P.과 12,880±130 B.P., 13,560±1950 B.P., 16,430±240 B.P.로 나타났는데, 凍結攪亂의 흔적은 10,300년 전보다 늦은 後期 更新世의 연대로 볼 수 있다.

<sup>33)</sup>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sup>34)</sup> V. M. Vctrov, 1995, "Stone Age Cultures of Upper Vitim- Early Ceramics", 『東アジア · 極東の土器の起源』 東北福祉大學 國際シンポジウム.

우스치·카렌가문화에 관련하는 층위에서는 석기편과 함께 석제품이나 토기의 파편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VIII層에서 나타나고 있다. 토기의 底部는 뾰족하며 모든 파편에는 輪積한 흔적이 나타나고, 口徑은 12~30cm로 다양하다. 문양의 시문기법은 1) 櫛齒狀의 스탬프에 의한 개별의 押捺, 2) 階段狀의 櫛目, 3) 새김을 넣은 圓筒이나 圓盤에 의하여 押印 혹은 押型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양 모티프 중에서는 수평으로 열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양은 주로 바깥면 전체에 시문되고 있는데 토기의 문양구성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평행으로 수평하게 시문된 지그재그文, 두 번째는 쇠사슬과 같은 시문의 조합에 의한 다이아몬드형을 하고 있는 문양, 세 번째는 수평 혹은 수직으로 달리는 稜杉文, 네 번째는 水平線과 斜線이 조합된 것, 다섯 번째는 口緣 斜面과 수평에 붙여진 짧은 스탬프文이다.

문양이 새겨진 圓筒形의 도구에 의한 시문은 口緣에 덧붙여 直線과 鋸齒文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口緣部의 文樣帶 아래나 동체부에 圓錐形의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 토기의 안쪽에는 櫛齒狀의 道具에 의한 條痕文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口脣部에는 안쪽으로 刻目文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검토한 아무르강 하류역의 콘차르카유적이거나 우스치노프카3 유적과도 공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櫛齒狀의 스탬프文을 가지고 階段狀의 櫛齒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문양이 없는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술한 토기와 같은 통일적인 형태, 기술, 시문방법, 시문 모티프를 가진 것이 서로 수백 km 떨어져 있는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우스치·카렌가문화가 내적 동일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스치·카렌가 문화 단계의 토기는 40여 개소의 퇴적층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楔形 細石核, 類프리즘型 石核, 프리즘型 石核, 彫刻刀(荒屋型), 石刃, 앤드·스크레이퍼, 複合形 스크레이퍼, 片面加工 스크레이퍼, 石斧狀 스크레이퍼, 나이프, 大形 石刃製의 尖頭器, 각종 兩面加工石器, 찍개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VIII층과 VIIa층에는 石材破片과 石刃이 발견되거나 형태를 갖춘 석기는 없으며 토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 2) 우스트·까흐타(Ust' Kyakhta)遺蹟

우스치·까흐타유적은 南자바이카리에의 세렌가강 류역에 위치한 석기 제작유적이다. 1978년 조사에서 제1층에서 열은 암갈색의 토기편이 출토하였는데, 토기는 약하고 파편 하나의 내부에는 평행하는 명주 모양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고 한다.<sup>35)</sup>

胎土에는 混入物로서 비교적 큰 鑛物片이 확인되며, 공반하는 석기는 다수의 橫長 細石核과 함께 細石刃(르발르와적인 특징을 가진 石刃과 共伴)이 있다. 제1층 출토 토기와 여기에 동반하는 석기의 방사성탄소연대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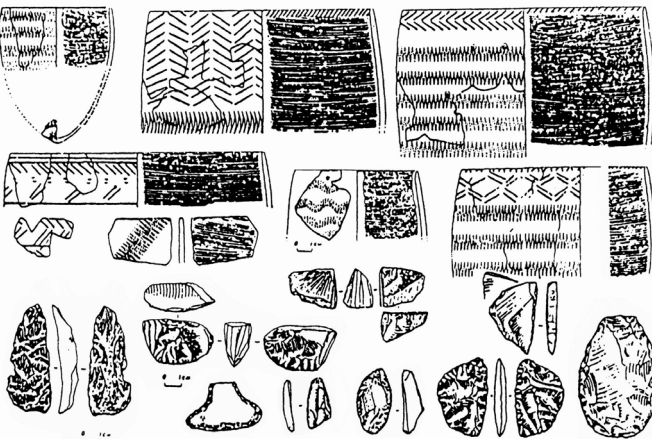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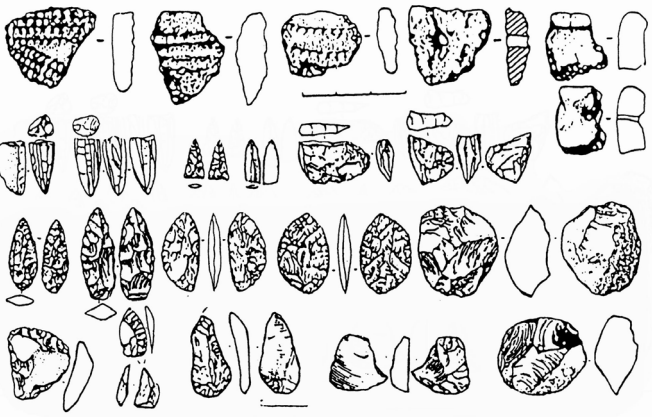
遺蹟	出土遺物
우스트·카렌가 (Ust' Karenga) 11,240±120 B.P. 10,750±60 B.P.	
우스트·울마 (Ust' Ulma) 12,000-10,500 B.P.	

그림 7. 아무르강 上(위)·中流域(아래)의 初期 新石器時代 유적과 유물

<sup>35)</sup> 이러한 특징은 아무르강 中流域의 그로마투화유적에서 출토된 絡條體 押痕文土器와 관련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로마투화에서 출토된 토기는 尖底 器形으로 구연부에 圓孔文을 가진 것이다.

되었는데 그 연대는 11,500±100 B.P.(SOAN -1252)<sup>36)</sup>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유적 토기 중 內面에 條痕文이 나타나고 있는 토기의 절대연대가 확인되었는데 12,595±150B.P.와 11,505±110 B.P.로 측정되었다.<sup>37)</sup>

### 3. 아무르강 中流域

#### 1) 우스트·울리마1(Ust' Ulima-1)遺蹟

아무르강의 지류인 셀렘자강의 江岸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이다. 이 유적의 상층에서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면서 별로 燒成이 좋지 않은 토기가 약간 발견되고 있다.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器壁이 두껍고 無文樣의 바탕에 특별한 整面調整 痕迹이 나타나지 않고 貫通된 孔列이 나타나고 있는 圓孔文土器와 器壁이 비교적 얇고 口緣部나 그 아래에 연속 押引文이 施文된 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토기에 공반되는 석기는 石刃石鏃과 더불어 三角形石鏃, 各種 尖頭器와 楔形細石器, 圓盤形石核, 프리즘型 細石核, 彫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양면가공석기도 공존하고 2차 가공된 대형 石刃이 있다. 이 토기를 同伴하는 層은 12,000~10,500 B.P.로 확인되고 있다.<sup>38)</sup>

#### 2) 그로마투화 3(Gromatukha-3)遺蹟

아무르강의 지류인 제야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으로 조금 上流域에는 셀렘자강이 지류를 형성하는 지점에 우스트·울리마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양 유적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로마투화문화는 아무르강유역의 전통적인 後期 舊石器時代의 셀렘자(Selemdja)문화와 관련되며, 모두 3개의 층위로 구분되었는데 지층은 연대는 10,000~7,000년 전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문화는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Osipovka)문화와 아주 유사하다.<sup>39)</sup>

이 유적 출토 토기의 특징은 隆起帶에 刻目이 새겨진 隆起文土器片 수 점과 口緣部 아래에 수평으로 孔列이 새겨진 圓孔文土器, 押型文土器, 刺突押引文土器 등 다양한 시문기법의 토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연부의 형

<sup>36)</sup> Vitaly E. Medvedev, 앞의 논문.

<sup>37)</sup> 梶原洋譯, 앞의 논문; 三上次男·神田信夫, 1990,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 『民族の世界史』, 山川出版社.

<sup>38)</sup> Vitaly E. Medvedev, 앞의 논문.

<sup>39)</sup>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태에 있어서는 끝 부분이 아주 두꺼워 지는 등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어 아무르강  
 류역의 초기 신석기토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口脣部の  
 특징에서도 波狀口緣土器나 口脣刻目文土器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 발굴에서는 1개체의 토기가 완형으로  
 복원되었다.<sup>40)</sup> 器形은 口緣部가 약간 外反하는 尖底 深鉢形으로 口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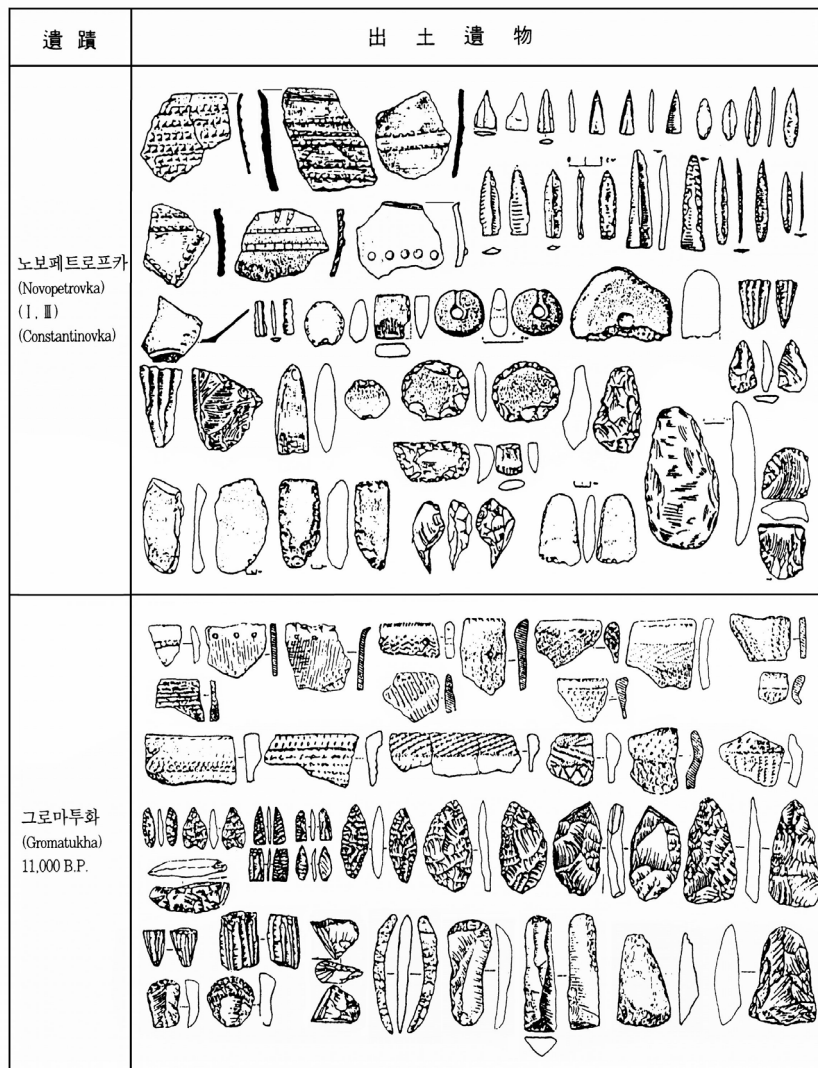


그림 8. 아무르강 中流域의 初期 新石器時代 유적과 유물

40) 可兒通宏, 1992, 『復元されたシベリアの縄文施文の土器』, 『季刊考古學』 38, 雄山閣.

아래에는 貫通된 孔列이 수평으로 이어지는데 구경 31cm, 높이 33cm, 두께는 2.3~7mm로 나타났다. 胎土는 粘性이 약한 砂質性 바탕에 약간의 植物纖維 混入痕이 관찰되고, 7~10cm 정도의 점토를 輪積하여 成形하였다. 문양은 내외의 토기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구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撚紐로 회전시킨 撚糸文과 눌러 施文한 絡條體 押痕文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圓孔文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아무르강 下流域의 우스치·노프카遺蹟와 같은 유적들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尖頭器를 중심으로 한 석기 내용들은 아무르강 下流域의 오시포프카文化와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圓錐形 細石核이나 隆起文土器片 1점은 용기문토기의 대표적 유적인 노보페트로프카文化 내용과도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노보페트로프카(Novopetrovka)유적

아무르강의 中流域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으로 1960년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어 곧바로 발굴된 유적이다.<sup>41)</sup> 노보페트로프카遺蹟은 모두 I~III지구로 구분된다.

제 I 지구는 아무르강 유역의 오시노보(Osinovo)湖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 II 지구는 1963년 I 지구로부터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두나이카(Dunaika)湖岸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제 III 지구는 1964년 발견되었는데 제 I 지구로부터 불과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된 유적은 제 II 지구인데 1970년 보고될 당시에는 서로 인접해 있는 I, III 지구만을 합쳐 출판되었다. 그리고 노보페트로프카유적 인근에 위치하면서 아무르강 연안 약 200m 지점의 砂丘에 형성된 콘스탄티노프카(Constantinovka)유적도 1961년 발견·조사되었는데 동일한 문화 내용이 확인되어 같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I 지구에서는 모두 8기의 주거유적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 또는 방형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며 각 주거지별 출토유물의 특징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유적은 성격상 後期 舊石器文化의 전통을 나타내면서도 공반되는 토기문화의 내용은 같은 시기 아무르강 유역의 일반적인 것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르강 상류에서 하류에 걸쳐 확인되는 初期 新石器 段階의 토기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주로 條痕文이나 圓孔文, 櫛齒狀의 지

41) Деревянко, А., op.cit.

그재그문양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유적에서는 토기 외면에 점토대를 붙여 시문한 隆起文土器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토기는 중국 동북지역 일부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九州·四國·本州지역에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 新石器文化나 일본 繩文文化 중 가장 古式으로 편년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류지로서의 의미도 크다.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와 특징상 아주 흡사한 平行 隆起帶文이나 기하학적 隆起文土器, 그리고 細石器 문화의 전통위에 동일 기법을 가진 대형 박편 석기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큰 것은 길이가 무려 10cm 이상의 石核이나 石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강 자갈의 양쪽 면을 깨뜨려 만든 漁網錘나 全面磨製石斧, 碾石, 갈돌, 有孔 磨製石器, 圓盤狀의 兩面加工 스크레이퍼, 彫器, 掘地具로 보이는 팽이형 석기 등과 더불어 發火石으로 추정되는 圓盤狀의 둥근 홈이 패인 石器, 石刃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 石鏃을 만들거나 끝 부분만을 2차 가공하여 만든 打製石鏃 등이 다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古式의 細石刃 技法이 나타나면서도 아주 발달된 磨製石斧가 공반되고 있는 것이나 石刃 石鏃을 비롯한 석기 내용들은 토기에서 나타나는 隆起文의 특징과 함께 이 단계나 그 이후 단계까지 아무르강 유역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무르강 유역의 셀렘자 유형 석기들은 古土器 文化가 발생하는 그 이전부터 그 이후 단계까지 橫長石核이나 尖頭器文化가 중심을 이루며 계통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강하지만, 이 토기 문화는 돌연히 아무르강 中流域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주 문화적 성격이 짙다. 이 토기 문화는 縱長石核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칼호 서쪽지역 후기 구석기전통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일대 지역에서 아무르강 中流域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문화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의 시기가 기원전 5,000년기 말에서 4,000년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하였는데, 당시 보고서 집필자 중의 한사람인 데레비안코(A.P. Derevianko)는 이때 제시된 연대는 新石器時代가 7,000년 이전을 넘지 않았던 당시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최근 노보페트로프카문화에 관련하는 後期 舊石器時代(18,000~12,000 B.P.)의 유물조합상이 붓세(Busse)村에 발견되었으며, 노보페트로프카文化의 초기 단계는 10,000년 이전으로 연대 지을 수 있다고 한다.<sup>42)</sup>

42)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또한 전형적인 石刃 石器群을 同伴하는 노보페트로프카문화는 초기 完新世의 문화 중에서도 두드러진 존재라고 밝히고, 노보페트로프카 2지점 출토의 刻目文이 있는 隆起帶文으로 대표되는 토기는 紀元前 9,000~7,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sup>43)</sup>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의 AMS에 의한 토기자체의 연대측정결과 13,000~9,000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sup>44)</sup>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와 비견되는 동시기 중류역의 대표적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4. 아무르강 연안 初期 新石器文化의 특징

가장 오래된 절대연대를 나타내고 있는 아무르강 下流域은 更新世 末期에 후기 구석기 전통과 함께 토기를 공반하는 段階를 오시포프카(Osipovka)文化라고 부르며, 그 시기는 대략 13,000~10,000년 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기 完新世의 문화를 말리셰프(Malyshev)문화라고 부르는데 9,000~8,000년전,<sup>45)</sup> 혹은 10,500~8,500년 전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6)</sup>

오시포프카文化의 유적에 의한 절대연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징상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반기는 가샤(Gasha)와 훔미(Hummy)유적의 양식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토기의 태토에는 식물섬유의 잔존물을 포함한 각종 유기물이 남아있고 조립의 모래나 잘게 부서진 광물이 혼입되어 있으며 燒成 溫度는 아주 낮은 편이다. 토기의 器形은 平底 深鉢形으로 내외면에는 거의 대부분 櫛齒狀의 工具나 胛骨에 의한 약한 沈線狀의 條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샤유적에서는 類似 隆起文으로 부를 수 있는 平행하는 隆起狀의 띠를 4줄 두른 것이 나타나고 있어 隆起文土器의 전통과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며, 口脣部 내면에 刻目을 시문한 것이 나타나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石器에 있어서 오시포프카文化의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은 렌즈상의 단면을 가진 兩面加工 尖頭器인데 큰 것은 길이가 7~18cm이며 거의 木葉形을 하고 있고, 드물게 基部가 가는 것도 있다. 小形 尖頭器들은 類三角形, 木葉形, 菱形, 有莖으로 橢圓形, 아몬드형이 있으며 전부 石鑱으로 사용되었던

43) Anatoly P. Derevianko · Vitaly E. Medvedev, op.cit.

44) Derevianko A.P. et al., op.cit.

45) Anatoly P. Derevianko · Vitaly E. Medvedev, op.cit.

46) Nina A. Kononenko · Andrea V. Tabarev, op.cit.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시포프카文化層에 극히 특징적인 것은 끝 모양의 刀部를 가진 石斧스크레이퍼狀 石器(주걱모양석기)가 존재하는 것이며 대부분 편평한 자갈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엔드·스크레이프와 몇 종류의 兩面加工 나이프狀 石器가 있으나 그 외의 종류는 비교적 양이 적다. 자갈로 만든 손도끼 모양의 양면가공 석기와 나이프·스크레이프와 같은 복합석기의 그룹도 있다. 彫刻刀는 一側邊이나 경사면에 彫刻刀面이 들어있는 것(荒屋型)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石核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소재는 별로 크기 않고 편평한 반원상의 자갈이나 특별히 준비된 석재를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橫長(舟形) 細石核도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프리즘형의 石核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으며, 이 외에 石刃, 細石刃, 스폴, 剝片 등이 많고, 漁撈에 관련되는 다양한 石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토기의 내외면에 나타나는 가는 沈線狀의 條痕은 다음 단계로 세분할 수 있는 후반기의 콘차르카유적이나 우스치노프카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콘차르카유적의 경우, 凍結現狀이 나타나는 溝에서 토기와 함께 확인된 절대 연대는 가샤유적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상부층과 계통적인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토기 내외면에 나타나는 條痕과 함께 口緣部 아래에 규칙적으로 구멍을 뚫은 圓孔文土器, 그리고 櫛齒狀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문된 지그재그 문양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확인되는 口脣刻目文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다음 말리쉐프(Malyshhev)문화 단계의 것으로는 가샤유적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回轉 押捺文土器나 押型文土器, 그리고 菱形의 押型文土器가 나타나는 沿海州 지역의 체르토티·보로타(Certovi·Vorota)유적을 들 수 있다. 이전 단계인 오시포프카문화와의 구분은 문양의 내용이나 시문기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석기의 특징에서 현저해 지는데, 구석기의 구성요소인 彫刻刀 및 細石刃 제작기법의 소멸과 함께 양면가공 기법이 한층 발달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sup>47)</sup> 그리고 有莖式 石槍이 발달하며 全面 磨製石斧의 등장이나 基部를 가진 細長形 二等邊三角形 石鏃 등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고 있다.

토기에 시문되는 문양은 口緣部를 중심으로 押引技法과 押型文,이 중심을 이루며, 圓孔의 흔적을 남기는 波狀 口緣部 등의 요소가 새롭게 확인되

47) Ibid.

는데 곱 모양 토제품이나 玦狀耳飾과 같은 요소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오시포프카문화에 대응하는 아무르강 中流域의 문화는 노보페트로프카유적과 우스트·우리마1(Ust' Ulima-1)유적, 그로마투화3(Gromatukha-3)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은 13,000~9,000 B.P.의 절대연대가 확인되고 있는데,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이 평저 심발형 기형의 용기문토기가 중심인 반면, 우스트·우리마1(Ust' Ulima-1)유적이 무문양의 圓孔文이나 連續刺突文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마투화유적에서는 平底의 隆起文土器와 함께 圓孔文이나 條痕文土器, 尖底 器形의 絡條體 押痕文, 撚糸文 등의 시문 요소와 두꺼운 구연부, 口脣部 刻目文, 波狀口緣으로 보이는 토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隆起文과 條痕文, 그리고 押痕文, 押型文이라는 3~4 종류의 문화층이 서로 혼합되어 출토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석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尖頭器를 중심으로 한 文化 내용들은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와도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나라 隆起文土器文化의 원류지로서 추정되어왔던 노보페트로프카(Nopetrovka)문화는 노보페트로프카 I, II, III유적과 콘스탄티노프카(Constantinovka)유적을 포함하는 것인데, 平行隆起帶文과 平行隆起帶文 사이에 鋸齒狀의 隆起文이 시문된 것, 그리고 隆起點列文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토기들이 인근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48)</sup>

이 유적 출토 석기에 있어서는 아무르강 연안의 다른 유적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된다.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그로마투화 3文化層에서 隆起文土器片 수 점이 출토되어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공반 석기에 있어서 그 특징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가 尖頭器를 중심으로 한 석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보페트로프카문화는 아주 발달된 石刃文化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細石器文化의 기법을 가지면서도 細石器로 보기에 石核이나 石刃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것이 많다. 그리고 하류역 중심의 石核은 주로 橫長石核(舟形)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圓錐形이나 楔形石核과 같은 縱長石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舊石器文化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石鏃의 경우, 오시포프카문화가 대체로 尖頭器의 제작기법이 소형화하면서 石鏃이

48) 大貫靜夫, 1987, 『昂昂溪採集の遺物について』, 『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발생하고 있으나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경우 石刃技法에서 無莖式 三角形으로 石鏃이 발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全面磨研石斧의 출현이나 發火石으로 보이는 有孔石器, 짧은 片刃石斧, 圓盤狀 兩面加工 스크레이퍼, 掘地具로 보이는 鑿型石器, 가운데가 관통된 有孔石器, 그리고 음식물을 가는데 사용한 礮石의 등장과 같은 특징은 아무르강 연안의 같은 시기 유적이나 이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특이한 것이다.

이 지역 初期 新石器文化는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이 그로마투화유적보다 先行한다는 견해는 이미 러시아 연구자들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지만,<sup>49)</sup> 우스트 울리마유적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양 문화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隆起文土器에서는 圓孔文이나 押痕文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지 않지만, 그로마투화유적에서는 보다 발달된 圓孔文土器와 함께 늦은 단계의 다양한 구연부 형태나 문양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르강 상류역의 우스트·까흐타유적은 押痕文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우스트 카렌가유적에서는 尖底 器形 내부에 櫛齒狀의 도구에 의한 條痕과 동일 施文具로 추정되는 正형화된 橫走 지그재그문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尖底 器形이 나타나는 중류역 그로마투화유적의 絡條體 押痕文이나 하류역 오시포프카문화의 후반 단계의 평저 지그재그문양과 공통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그재그文의 경우 오시포프카문화의 후반에 해당하는 곤차르카유적의 경우는 櫛齒狀의 施文具로 간격이 넓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과 胎土의 燒成溫度가 보다 낮고 砂礫粒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무르강 연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베리아 極東地域의 초기 토기문화는 條痕文이나 圓孔文, 지그재그文이라는 요소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으며, 중류역에서는 隆起文土器라는 독특한 요소가 돌연히 등장하고 있다.

이 지역 初期 土器文化의 편년은 圓孔文을 가진 토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전에 해당하는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 前半 段階과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문화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토기야말로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토기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토기의 발생과 기원은 중류역의 隆起文土器와 하류역의 無文樣 條痕文土器라는 두 계통

49) Деревянко, А., op.cit. ;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으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우리나라의 初期 新石器文化와 周邊地域과의 關係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는 과거부터 널리 알려져 온 隆起文土器 文化와 최근 細石器 文化와 관련하여 출토되고 있는 濟州道 高山里遺蹟의 無文樣土器文化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절대연대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일본열도나 최근 절대연대가 밝혀지고 있는 시베리아지역 초기 신석기문화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용기문토기는 우리나라 유적에서 나타나는 층위 해석상 가장 하층문화기에 속하기 때문에 신석기 문화의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어 왔다. 그러나 명확한 절대연대가 확인되지 않아 그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화의 원류지를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연대가 보고서에는 紀元前 5,000년기 말에서 4,000년기 초로 편년되면서, 우리나라 용기문토기의 연대도 이에 따라 설정되었지만, 최근 토기에 부착된 탄화물을 과학적 연대 측정 기법(AMS)을 이용하여 절대연대를 측정한 결과 13,000~9,000년 전으로 확인된 바 있다.<sup>50)</sup> 때문에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의 연대도 당연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 繩文文化 草創期에 나타나는 隆起文土器도 이러한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르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初期 新石器文化 단계의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의 시공적 위치나 성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르강 중류역에서 확인된 隆起文土器이며, 그림 10은 이와 계통상 관련성을 가진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의 몇 가지 예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용기문이라는 기법상의 공통성 외에도 동일한 문양 모티프를 가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에 나타나는 것은 시베리아 지역 외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초기 신석기시대 용기문토기 중 口脣部에 刻目文이 새겨진 太線 및

<sup>50)</sup> Derevianko A.P. et al., op.cit.

細線, 그리고 波狀形을 나타내는 토기의 기법적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한 것들이다. 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일본열도에 나타나고 있는 초기 신석기시대의 용기문토기들은 기본적으로 평행용기선문이 중심을 이루지만, 이후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과 함께 지역색이 짙어지면서 내부에 문양대가 가미되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무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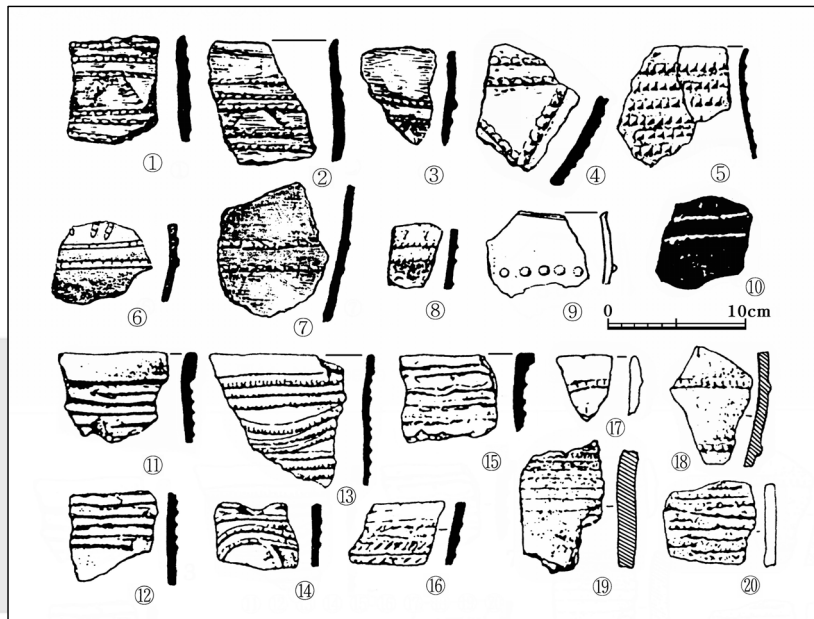


그림 9. 시베리아 아무르강 中流域 出土 隆起文土器

(①~⑩ : 노보페트로프카, ⑪~⑭ : 오시노보예, ⑮ ⑯ : 세루케프카, ⑰~⑳ : 그로마투화 3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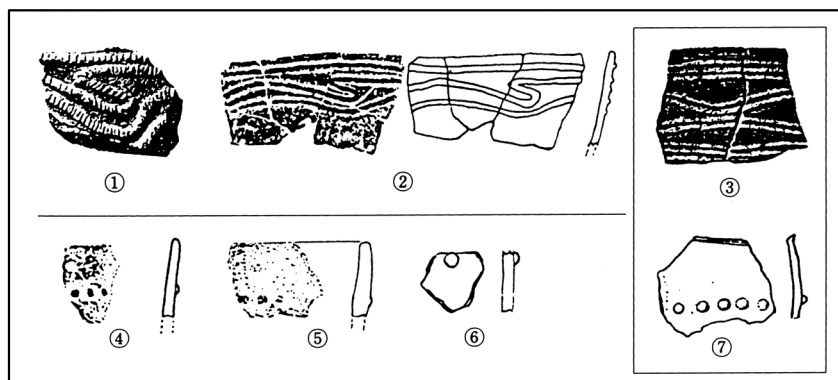


그림 10. 蛇行狀 隆起文土器 隆起點列文土器의 비교

(① : 東三洞, ② : 高山里, ④ : 欲知島, ⑤ : 凡方, ⑥ : 安島, ③ ⑦ : Novopetrov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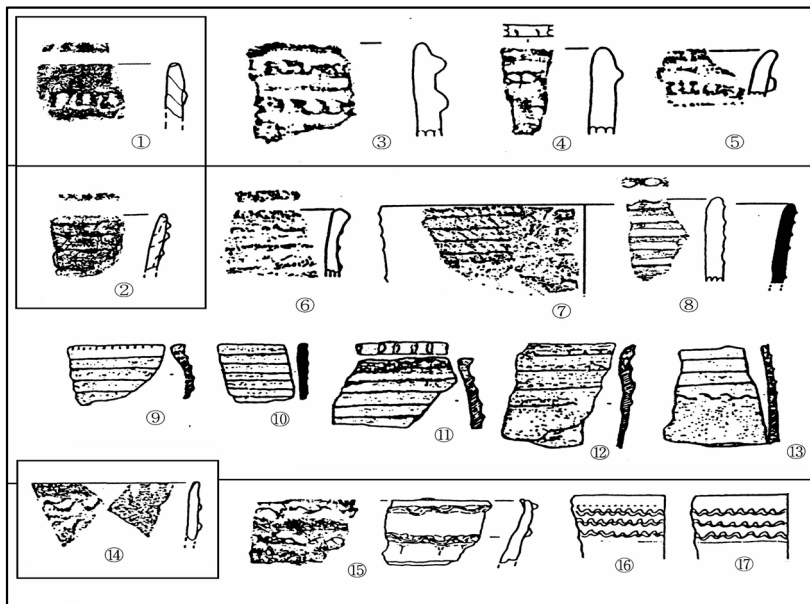


그림 11. 口脣刻目文이 새겨진 太線 및 細線, 波狀 隆起文土器의 비교

(①②: 煙臺島, ④: 凡方(韓國), ③⑥: 八ヶ上(日本 埼玉縣), ④⑦: 酒吞ジュリンナ(愛知縣), ⑤: 座敷亂木(宮城縣), ⑨~⑬: 中國 東北地方 黃家園子, ⑮: 上黑岩(日本 四國), ⑯⑰: Chertovi Vorota)

하류역 오시포프카문화의 경우에도 후반 단계가 되면서 마제석기류의 발달과 함께 波狀隆起文土器가 등장하는데, 이 단계의 특징도 시베리아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高山里式土器에 나타나는 지그재그文·圓孔文·條痕文土器 등의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산리유적의 경우 器形이 모두 평저형을 이루지만 동일 계통을 가진 이후 단계의 토기들은 圓底 혹은 尖底形을 이루면서 청도 오진리유적이나 하동 목도리유적, 그리고 남해안 각 지역의 패총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에 나타나는 요소들이다.

이 중 고산리유적의 경우는 절대연대와 공반유물의 성격상 오시포프카 後半 단계의 곤차르카유적과 아주 흡사한데, 다만 곤차르카유적의 토기는 條痕文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高山里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면 모두 條痕文土器의 範疇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高山里式土器와 직접적 관계를 가진 아무르강 하류역 곤차르카유적의 절대연대는 10,590 B.P.로 확인되었는데, 濟州道 高山里式土器의 연대도 10,180±65 B.P.라는 유사한 연대치가 나타나<sup>51)</sup> 문화 내용뿐만 아니라 절대연대적으로도 서로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본 繩文文化 초창기 단계의 유물 중에도 圖1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신석기문화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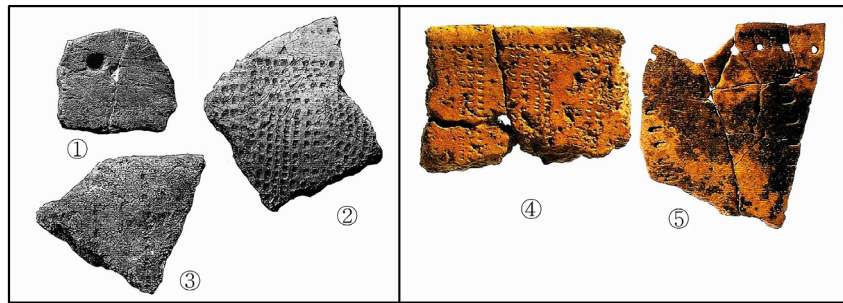


그림 12. 圓孔文土器와 공반되는 櫛齒狀 押捺文土器의 비교  
 (①③ : 濟州道 高山里, ④ : 栢原遺蹟(日本 福岡縣), ⑤ : 壬遺蹟(日本 新潟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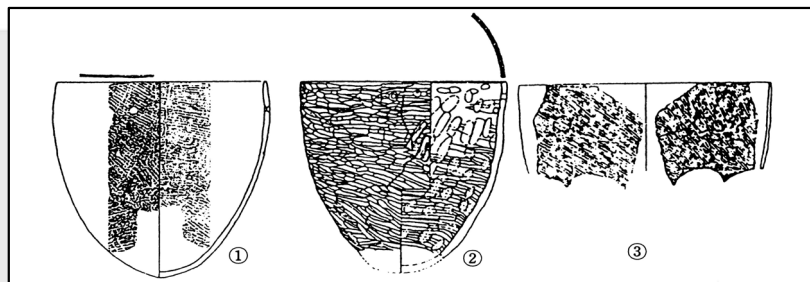


그림 13. 韓國 南海岸地方과 日本 九州地方 出土 條痕文土器의 비교  
 (① : 凡方遺蹟, ②③ : 二日市洞穴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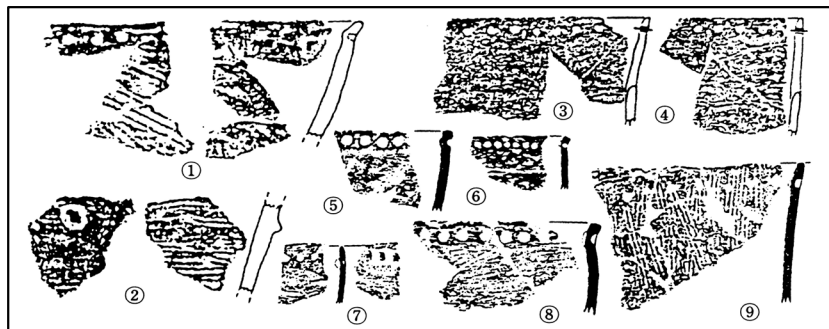


그림 14. 日本出土 圓孔文土器  
 (①② : 原遺蹟(福岡縣), ③④ : 壬遺蹟(新潟縣), ⑤~⑨ : 岩下遺蹟(佐世保市))

51) 강창화, 2004, 『제주도 신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 신석기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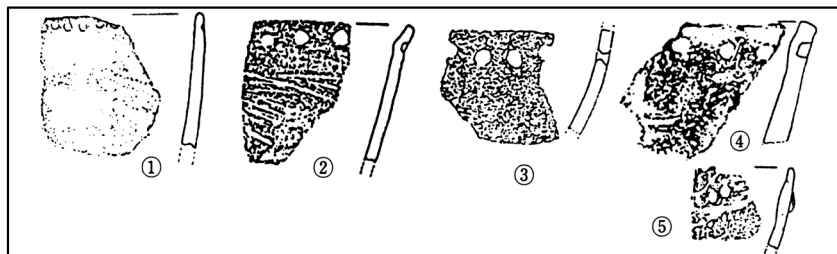


그림 15. 韓國 南海岸地域 출토 圓孔文土器  
 (①②⑤: 欲知島貝塚, ③: 凡方 D-VIII層, ④: 安島貝塚)

그리고 尖底 혹은 圓底 器形을 중심으로 하는 圓孔文土器나 條痕文土器도 그림 13·14·1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토품과 제반 특징에서 확실한 관련성이 예상된다. 특히 尖底 器形을 가진 시베리아지역의 토기는 앞서 살펴본 상류역의 우스트·까흐타유적이나 중류역의 그로마투화유적에서 확인한 바 있지만, 이후 모두 평저토기 단계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용기문토기 후반 단계부터 신석기시대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저 혹은 침저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隆起文土器와 條痕文土器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條痕文土器가 日本 九州地域에서의 명확한 層序 관계를 나타내는 유적은 九州地域의 大分縣 二日市遺蹟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圓底 深鉢形을 특징으로 하는 條痕文土器는 繩文文化 早期 단계의 특징적인 押型文土器 하층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隆起文土器와 상호관계는 泉福寺 岩陰遺蹟이나 그 밖의 자료에서 늦은 것임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구주 지역의 경우 隆起文土器 보다 늦은 草創期 後半이나 早期 初로 編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시베리아 中流域과 日本 九州地域의 예를 통하여 濟州道 高山里유적에서도 隆起文土器가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2)</sup>

그런데 隆起文土器의 분포는 일본 내에서 본다면 九州地域으로부터 本州 北端인 大平山元遺蹟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연대는 구주지역으로부터 本州 북단으로 가면서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1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新潟縣 壬遺蹟<sup>53)</sup>이나 神奈川縣 月見野遺

<sup>52)</sup> 실제로 이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康昌和先生과 筆者, 그리고 日本 奈良教育大學 長友恒一先生과 함께 高山里遺蹟의 T.L. 年代測定을 위하여 양호한 層位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高山里式土器層보다 조금 下層에서 隆起文土器의 태로를 지닌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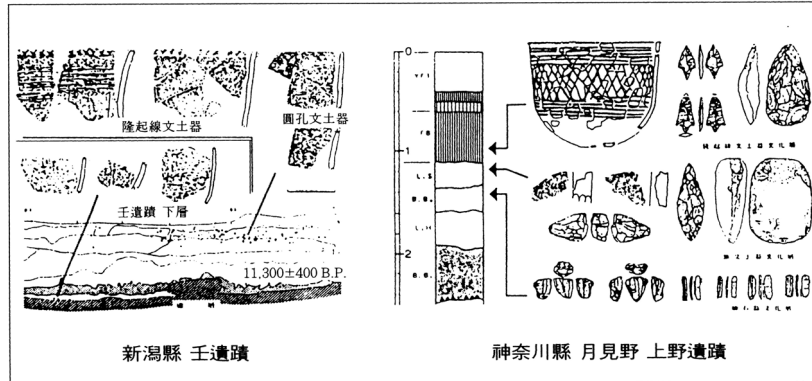


그림 16. 東日本地域 隆起文土器에 層位的으로 선행하는 無文樣土器文化의 흔적

蹟<sup>54)</sup>에서도 이미 층위적으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東日本 지역에서는 隆起文土器 文化에 선행하는 무문양토기가 별도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문양토기의 성격은 아직 뚜렷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성격상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카문화의 파급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九州地域에 이르면 오히려 이러한 圓孔文이나 條痕文土器 문화가 隆起文土器보다 시기적으로 늦다는 사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특히 隆起文土器文化는 시베리아·극동지역 後期 舊石器文化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갈돌이나 磨製石斧, 圓孔形石器 등 발달된 마제석기류와 함께 無莖式 三角形石鏃類, 掘地具, 縱長形石核類를 이용한 大形 剝片石器類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문화에는 셀렘자 後期 舊石器文化에 많이 나타나는 小形 橫長石核이나 尖頭器文化가 발달하지 않은 점에서도 시베리아·극동지역의 토착문화와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隆起文土器 文化나 日本 九州地域의 경우는 이러한 문화전통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 關東지역 草創期 繩文文化에는 이러한 양 지역의 문화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지역 初期 新石器文化와 뚜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시베리아·極東地域 初期 新石器文化는 두 계통의 문화가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隆起文土器를 특징으로 하는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이며, 나머지 하나는 條痕文土器를 사용하면서 토착 성격이 짙은 아무르강 하

53) 國學院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80·1981·1982·1983, 『壬遺蹟』, 新潟縣中魚沼郡中里村.

54) 大和市教育委員會, 1986, 『月見野遺蹟軍上野遺蹟第1地點』.

류역의 가사·흙미유적이다. 이러한 유적들의 출토유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성격상 서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함경북도 羅津遺蹟의 경우에도 오시포프 카문화 다음 단계인 말뤼셰프(Malyshev)문화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7에 나타나는 것은 토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내용들을 종합하여 비교한 것으로 토기 외에도 곰모양 토우와 같은 것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있어 문화의 파급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정신문화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러한 시베리아·극동지역 初期 土器文化의 발생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일까. 이 문제야말로 舊石器文化에서 新石器文化로 이행하는 動因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後期 舊石器時代 유라시아대륙 거의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맘모스 상아로 만든 비너스와 같은 것은 구석기인들의 신앙적 측면을 통하여 문화의 전파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그림 18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 위치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도르니베스토니체유적에서는 25,000 B.P.의 절대연대를 가진 토제 비너스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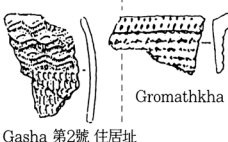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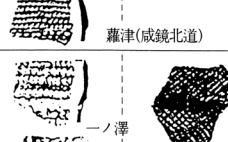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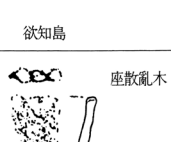

	隆起文土器	回轉文土器	波狀口緣土器	熊形土製器
시 베 리 아	 Novopetrovka	 Gromathkha Gasha 第2號 住居址	 Gasha	 Gasha
韓 國	 新岩里	 羅津(咸鏡北道)	 欲知島	 欲知島
日 本	 上野原 大原B遺蹟	 鳥浜 小瀬ヶ澤	 座散亂木	

그림 17. 우리나라와 시베리아·일본열도의 초기신석기문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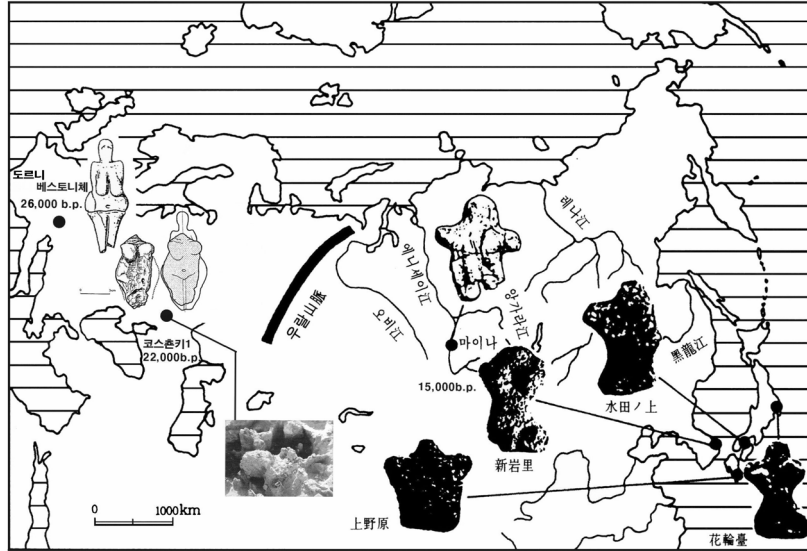


그림 18. 유라시아 大陸의 舊石器時代 土偶와 韓國·日本 출토 新石器時代의 土偶

되고 있다.<sup>55)</sup> 토우의 형태상으로도 후기 구석기시대의 비너스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인류가 흙을 燒成하여 만든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연대로 추정되는 흑해 북쪽의 러시아 남서부 코스츠킨1유적에서는 점토를 소성하였던 燒成遺蹟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일부에서는 후기 구석기문화 단계에 이미 흙을 구워 소성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토제 비너스의 전통을 가진 것으로 바이칼 서쪽지역의 後期 舊石器時代 마이나(Maina)유적에서는 흙으로 구워 만든 土製 비너스와 이를 굽던 窯址가 발견된 바 있어,<sup>56)</sup> 아무르강 유역의 토기 발생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유적은 15,000 B.P. 이전에 해당하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후기 구석기시대의 비너스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완전한 인체의 형태를 이루면서 가슴부분과 엉덩이를 강조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머리부분이 생략되면서 목 부분과 벌린 짧은 팔, 그리고 다리부분이 퇴화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특징은 우리나라 新岩里遺蹟에서 출토된 것이나 일본의 초기 토우들의 원류로 생각할 수 있다.

55) 木村英明, 『シベリアの舊石器文化』, 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 312~331쪽.

56) 木村英明, 앞의 책, 312~331쪽.

즉, 인류가 최초로 흙을 구워 만든 것은 토기가 아니라 mammoth의 상아로 만들던 神像(偶像)인 비너스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土製 成形 技術이 시베리아·極東地域으로 유입되면서 初期 土器文化가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토우의 형식적 변화과정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 셀렘자 유형의 토착적 구석기문화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隆起 文土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隆起 文土器 문화는 이 단계 아무르강 연안의 여타 유적보다도 공반유물의 성격상 구별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참고될 수 있다.

이 토기 문화는 아무르강 하류역에서 13,000년 전을 전후한 절대연대가 나타나는 가샤, 훔미유적 등 최고의 토기군에 직결되고 있으나 아주 단시기에 걸쳐 존재한 문화로 보기도 하고,<sup>57)</sup> 兩面加工 尖頭器 石器群과 토기를 공반하는 우스치노프카<sup>3</sup>유적이나 곤차르카유적의 석기제작 전통과는 직접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土器의 內面調整技法이나 문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방에서 전파된 매우 특이한 문화전통일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58)</sup> 또한 그 기원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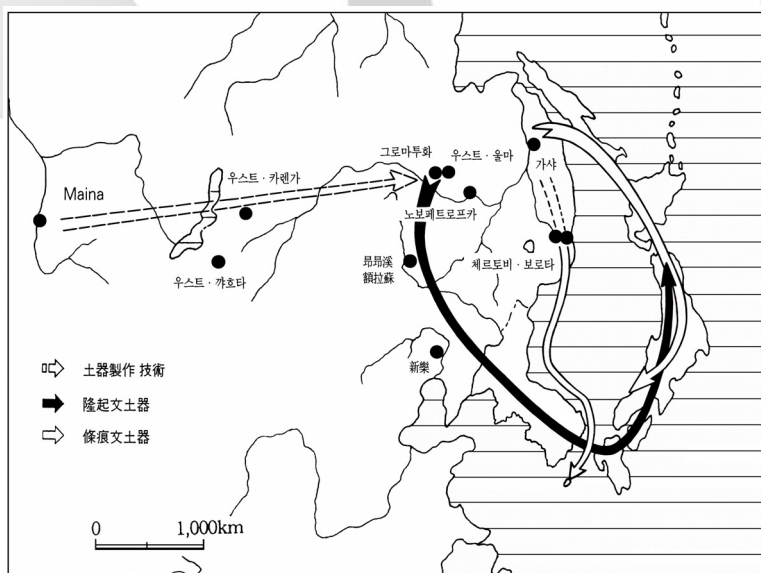


그림 19. 東北아시아 初期 土器文化의 발생과 전파과정 추정도

57)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58) 梶原洋譯, 앞의 논문.

는 서시베리아의 체르노제리에유적 등에 보여지는 圓錐形 石刃核을 공반한 石刃文化群이 가장 유사하다고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참고한다면, 아무르강 중류역에 돌연히 나타나는 隆起 文土器 文化는 縱長石核의 전통과 함께 바이칼 서쪽지역으로부터의 移住的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집단에 의하여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토기 제작 기술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전통을 가진 보다 이른 단계의 후기 舊石器遺蹟이 이 일대의 붓세(Busse)촌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sup>59)</sup>은 향후 보다 이른 단계의 토기 전통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아무르강유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초기 신석기문화는 바이칼호수 서쪽지역의 토우를 중심으로 하는 토기 제작 기술이 유입되면서 2가지 계통의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아무르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용기문토기 문화는 유적의 분포권을 참고한다면 松花江의 지류인 松嫩平原을 따라 남하하여 백두산 일대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일본열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며, 하류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조흔문토기 계통의 오시포프카 문화는 사할린과 北海道를 따라 일본열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역의 경우에는 이 2가지 문화가 교차하는 관계로 석기의 경우에는 양쪽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시포프카문화의 한 갈래는 고찰하였던 바와 같이 용기문토기와 같은 동해안을 따라 제주도 고산리유적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2계통의 문화는 거의 동시기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과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열도의 경우 구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일본지역은 조흔문토기 보다 용기문토기가 선행하지만, 동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그림 1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 초기 신석기시대 문화의 전과과정을 예상하였으며, 양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중심지가 일본 관동지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우리나라 初期 新石器文化의 내용은 지금까지 隆起 文土器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청도 오진리유적의 조사에서는 條痕이 나타나는 무문양

<sup>59)</sup> A. P. Derevianko · V. T. Petrin, op.cit.

토기가 층위적으로 용기문토기 보다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되면서 초기 신석기문화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진리식토기의 계통을 가지면서 후기 구석기문화의 전통을 지닌 보다 이른 시기의 유적이 제주도 고산리에서 확인되면서, 이 토기문화가 한반도의 가장 이른 신석기유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산리유적에서도 일부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바 있기 때문에, 이 토기와 용기문토기가 층위적으로 어떠한 선후 관계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기 유사한 성격의 일본 繩文文化 草創期 유적에서도 용기문토기와 같이 출토되는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용기문토기와 고산리식토기 계통의 무문양, 혹은 條痕文土器 문화의 접촉이나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절대연대에 무작정 따라가는 성급한 판단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 2가지 토기문화의 계통을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초기 신석기문화의 성격과 관련성에 따른 계통을 찾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시베리아·극동지역의 初期 新石器文化는 크게 두 계통의 문화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隆起文土器를 특징으로 하는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이며, 나머지 하나는 條痕文土器를 사용하면서 토착 성격이 짙은 아무르강 하류역의 가샤·흄미유적이다.

이 중 용기문토기 문화는 과거부터 아무르강 중류역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과 관련 깊은 것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연구자도 이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일본 승문문화 초창기에 나타나는 용기문토기는 10,000~12,000년 이전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자 외에는 이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은 과거 시베리아의 노보페트로프카유적 연대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기원전 5,000년기 말에서 4,000년기 초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기문토기의 연대도 이에 따라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적 연대 측정 기법(AMS)을 이용하여 용기문토기의 탄화물을 이용한 절대연대를 측정한 결과 13,000~9,000년 전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 隆起文土器의 연대도 당연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 繩文文化 草創期에 나타나는 隆起文土器도 돌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용기문토기의 각 지역적 편년과 문양구성이나

특징 등을 통하여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유적의 분포권을 참고한다면 松花江의 지류인 嫩江 유역의 松嫩平原을 따라 남하하여 백두산 일대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일본열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아무르강 하류의 條痕文을 특징으로 하는 오시포프카문화는 10,000~13,000년 전의 절대연대가 확인되고 있다. 이 문화의 후반 단계에 해당하는 곤차르카(Goncharka)유적은 절대연대나 성격상 제주도 고산리유적과 매우 관련이 깊은 유적이다. 구연부 아래에 圓孔文이 뚫어져 있고 문양은 그 아래에 수직방향으로 지그재그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공반되는 점 등은 오시포프카문화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예상되고, 토기 내부에 식물성 섬유가 혼입된 독특한 특징은 오시포프카문화 초기 단계인 가샤유적에서도 거의 모든 토기 파편에 나타나는 특징이어서 주목된다.

이 2계통의 문화는 거의 동시기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파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열도의 경우 구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일본지역은 조흔문토기 보다 용기문토기가 선행하지만, 동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동해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각각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오시포프카문화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 제주도 고산리유적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열도 신석기문화의 원류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 제작 기술이 어떻게 돌연히 2가지의 계통을 지니면서 아무르강유역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에 맘모스의 상아로 많이 제작되었던 비너스상 중에 확인되는 토제 비너스상에 주목하였다. 즉 인류가 흙은 소성하여 토제품을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이탈리아반도 북쪽의 체코슬로바키아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도르니베스토니체유적 출토 토제 비너스상이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토우는 가슴과 엉덩이부분을 강조한 전신상의 제작되는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구석기문화 말기 단계에 해당하는 15,000년 전의 바이칼 서쪽 마이나유적에서는 전형적인 비너스상에서 형식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머리 부분이 생략되며, 십자모양으로 팔을 벌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부분이 짧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토우에서도 다리 부분이 생략되면서 그 특징이 계승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정신적이 측면이 강조되는

여신상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토우의 예를 통하여 신석기문화의 원류지가 어딘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때문에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나타나는 초기 토기문화는 바이칼 서쪽 지역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의 토착적인 구석기문화 속에 바이칼 서쪽지역의 구석기전통을 가지면서 돌연히 등장하는 노보페트로프카유적의 용기문토기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토기 집단이나 이 토기의 계통을 가진 보다 이른 시기의 집단이 토기 제작의 기술을 가지고 바이칼호수를 건너 아무르강 중류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기 제작기술이 과급되었고, 아무르강 하류역의 오시포프키문화의 발생도 이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초기 신석기문화가 이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편년적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빙하기 당시 동해안이 저해수면 상태로 해류의 영향이 아주 미약한, 마치 호수와 같은 상태였던 당시의 환경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창화·오연숙, 2003, 『濟州 高山里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 강창화, 2004, 『제주도 신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國立晉州博物館, 1999, 『牧島里貝塚』.
-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4, 『淸道 梧津里 岩陰遺蹟』 雲門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 1.
- 沈奉謹·李東注, 1997, 『蔚山 牛峯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 李東注, 1993, 『동아시아에 있어서 韓國의 初期 新石器文化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新石器文化』 國立文化財研究所.
- 李東注,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東注, 1998, 『韓國 初期 新石器時代의 文化的 性格』, 『轉換期の 考古學(1)』, 韓國上古史學會.
- 任孝宰, 1997, 『新石器文化』, 『韓國史』 2, 國史編纂委員會.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高山里遺蹟(圖錄)』.
- 河仁秀, 1993, 『凡方貝塚』I,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河仁秀, 1994, 『凡方貝塚』II,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韓永熙, 1983, 『地域的比較』, 『韓國史論』12.
- 홍현선, 1987, 『상시3바위그늘의 문화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加藤博文, 2006, 『アムールランドにおける新石器文化の成立過程』,  
『北海道縄文文化とロシア極東新石器文化の交流に関する共同研究』國學院大學.
- 可兒通宏, 1992, 『復元されたシベリアの縄文施文の土器』, 『季刊考古學』38, 雄山閣.
- 江坂輝彌, 1980, 『西北九州の縄文文化と朝鮮半島南部の先史文化』,  
『考古學ジャーナル』183.
- 廣瀬雄一, 1984, 『韓國隆起文土器論』, 『異貌』11.
- 廣瀬雄一, 1986, 『韓國隆起文土器の系譜と編年』, 『異貌』12.
- 鎌木義昌・芹澤長介, 1967, 『長崎縣福井岩陰』, 『日本の洞穴遺蹟』.  
國學院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80・1981・1982・1983, 『壬遺蹟』,  
新潟縣中魚沼郡中里村.
- 大貫靜夫, 1987, 『昂昂溪採集の遺物について』, 『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 大和市教育委員會, 1986, 『月見野遺蹟軍上野遺蹟第1地點』.
- 笠原鳥丸, 1936, 『櫛目文土器を發見せる北鮮清湖里遺蹟に就て』, 『人類學雜誌』51-5.
- 笠原鳥丸, 1936, 『櫛目文土器を發見せる北鮮清湖里遺蹟に就て』, 『人類學雜誌』51-6.
- 木村英明, 『シベリアの舊石器文化』, 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
- 三上次男・神田信夫, 1990,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 『民族の世界史』, 山川出版社.
- 八木獎三郎, 1960, 『北鮮咸鏡北道石器考』『先史學』1, 東京人類學會  
人類學叢刊 乙.
- 横浜市歴史博物館, 1996, 『縄文時代草創期』資料集.
- 梶原洋譯(イ-ゴリ・ヤコ-ブレビッチ・セエフカム-ト外著), 1997, 『極東・沿海州の土器-ゴンチャールカ1遺蹟の發掘調査』, 『考古學研究』44-3(通卷175).

- A. P. Derevianko · V. T. Petrin, 1995, “The Neolithic of The Southern Russian Far East: A Division into Periods”,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学.
- Jull A.J.T. et al., 1998, Radiouglerodnaya khronologiadrevneishikh neoliticheskikh kul'tur Uga Dal'hego Vosstoka Rossii i Zabaikak'ya po resul'tatam pryamogo datiribaniya keramiki metodom yskoritel'noi mass- spektrometrii.
- Vitaly E. Medvedev, 1993, 『ガシャ遺蹟とロシアのアジア地区東部における土器出現の問題について』, 『環日本海地域の土器出現期の様相』1993年度 日本 考古学協会 シンポジウム, 雄山閣.
- A. V. Garkovik · L. S. Zhushchikhovskaya, 1995, “The Earliest Ceramic Assemblage in the Primorye Region”,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学 国際シンポジウム.
- Anatoly P. Derevianko · Vitaly E. Medvedev, 1995, “The Amur River Basin as one of the Earliest Centers of Ceramics in the Far East”,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学 国際シンポジウム.
- Derevianko A.P. et al., 2002, “AMS 14C age of the earliest pottery from the Russia Far East : 1996~2002 results.”, Abstract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Nagoya University.
- Nina A. Kononenko · Andrea V. Tabarev, 1995, “Lithic Technology Tradition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e Maritime Region, Russian Far East”,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学 国際シンポジウム.
- V. M. Vetrov, 1995, “Stone Age Cultures of Upper Vitim- Early Ceramics”,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東北福祉大学 国際シンポジウム.
- Деревьянко, А. 1970, П Новопетр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го Амура. Новосибирск.

Abstract

##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Neolithic Age culture in Northeast Asia

Lee, Dong Ju

The early Neolithic Age culture of Korea has been defined by pottery with clay stripes attached, but it was recently found that the absolute age of Jeju-do's Gosan-ri relics that have mixture of plant fiber but no pattern is more than 10,000 years. Thus, this new finding of earthenware is considered the earliest Neolithic Age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above two styles of earthenware did not develop in two branches because of time difference, but two different cultures that emerged around the Amur River in Siberia in the early Neolithic Age spread as two branches of culture. Gosan-ri relics in Jeju-do is a part of the Osipovka Culture, that is thought to be 10,000~13,000 years old, from the downstream of Amur River and the pottery with clay stripes attached is closely related to the Novopetrovka Culture from the midstream of Amur River which is 9,000~13,000 years old. Thus, it was found that these two cultures coexisted in the similar period of time.

The background of these cultures of earthenware that suddenly emerged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was sought from the earthen statue of Venus from the late Old Stone Age. The typical Venus statues from the Maina Civilization to the west of Baikal Lake which is thought to be 15,000 years old showed changes in style. In the late Old Stone Age, the statues lost heads, spread their arms as if they are crucified, and developed shorter legs. As these characteristics are found in the earthen sculptures of Korea and Japan, we can trace the origin of early Neolithic

Age culture of Korea and Japan to the Amur River civilization.

Keywords : Pottery with Clay Stripes Attached, Streak Earthenware,  
Osipovka Culture, Novopetrovka Culture, Venus, Maina  
Civilization, Gosan-ri Relics, Earthen Sculptures

K C I